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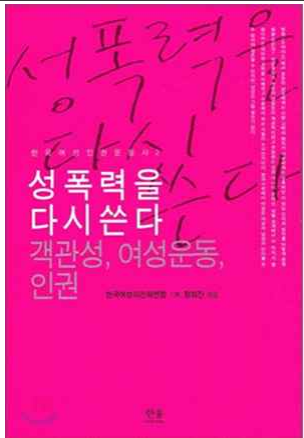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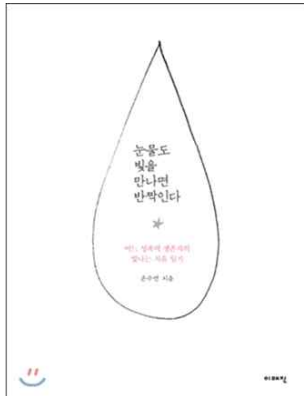


[성폭력상담센터] 추천도서 목록 및 목차

번호	제목	지은이	출판사
책소개			
1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	크리스티안 노스롭 지음 , 강현주 옮김 , 홍성환 감수	한문화
	<p>몸의 메시지에 귀 기울일 때 육체와 영혼의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 첫월경에서 폐경까지, 여성질환 속에 담긴 내면의 목소리와 치유의 길 자궁에서 유방까지, 여성의 신체기관에 관한 독특한 접근법</p> <p>20여 년 간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현대의학의 최전선에서 여성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 온 저자가 찾아낸 여성 질병의 숨겨진 진실들을 밝힌다. 미국 전역에서 간호학과와 병원의 교육책자로 쓰일 만큼 방대한 의학적 지식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 질병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보다 근본적인 원인과 치유법을 제시한 책이다. 남성중심의 온갖 편견으로 중독된 사회구조에서 여러가지 갈등과 모순 속에 살고 있는 여성들로 하여금 내면의 지혜와 만나고 진정한 치유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p>		
2	성심리와 성건강	박경, 이희숙, 김선경, 고정애, 유춘자, 김혜경, 허정은 지음	Σ시그마 프레스
	<p>性は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성은 인간에게 중요한 욕구이며 본능인 동시에 심리적 갈등과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심리에 대한 이해는 생리적인 것에서 심리, 사회적인 측면까지를 폭넓게 포괄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이제는 전에 비해 성적 소수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개인의 행복 추구에 있어 성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창피해하거나 무조건 옳지 않다는 시각으로 보지만은 않는 분위기이다.</p> <p>개인이 성에 관해 지니는 생각이나 태도는 실제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개인의 생각과 실제 행동의 차이가 큰 것 또한 성이라 볼 수도 있다. 우리가 성을 보다 잘 이해할 때 성의 다양성을 좀 더 존중하게 될 것이며, 관계적인 측면에서나 욕구 충족에 있어 이를 좀 더 수용하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p>		
3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DIY 가이드 - 보통의 경험	한국성폭력상담소 지음	이매진
	<p>신고에서 치유까지, 내 손으로 해결하는 성폭력 홀로만 삭이고 있을 피해자들을 위한 DIY 가이드</p> <p>버스나 지하철에서 겪는 불쾌한 신체 접촉, 헤어진 남자친구의 스토킹, 학교 MT나 술 자리에서 당하는 성추행, 직장 상사의 성희롱…….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지 않은 여성이 없다고 해도 좋을 만큼 성폭력 피해는 흔한 경험이다. 그러나 막상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2.3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머지 97.7퍼센트 여성들은 남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경찰을 믿을 수 없어서, 내가 겪은 일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막막하고 부담스러워서 피해 사실을 홀로 삭이고 있는 것이다.</p> <p>이렇게 침묵하던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성폭력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 여기 있다.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여성들의 성폭력 사건 해결을 지원해온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책 『보통의 경험』을 펴냈다. '피해자를 위한 DIY 가이드'인 이 책은 성폭력에 관한 오해와 편견 바로잡기, 성폭력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제도, 유형별 대처법, 피해자의 자가 치유까지 성폭력 사건 해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p>		

번호	제목	지은이	출판사
책소개			
4	아주 특별한 용기 -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영혼의 치유	엘렌 베스 ·로라 데이비스 지음 ,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 이경미 옮김	동녘
	오로지 성폭력 생존자의 신체적·정신적 치유에만 초점을 둔 유일한 상처 극복 지침서다. 지금까지 어린이 성폭력에 관한 많은 책들이 피해 자체의 처참함이나 비극적으로 망가진 인생, 사건 자체의 해결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 책은 성폭력 피해자의 상처 회복에만 집중하여 기획됐다. 이 책은 성폭력의 상처를 진실되게 마주하여 기억해내는 것부터 시작해 상세한 치유 과정을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변화하는 생존자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피해 이후 치유의 모든 것을 담았다. 총 4부로 구성하여 치유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5	쾌락, 폭력, 재현의 정치학 섹슈얼리티강의, 두 번째	(사)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 변혜정 엮음	동녘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는 모든 여성을 피해자로 보는 시각에 조심스레 문제를 제기하며, 여성들이 제각각 결혼 여부, 계급, 세대, 인종, 민족, 국가 같은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구성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쓴 글들을 모았다. 여성들 각자의 다양한 경험과 느낌, 그것을 자기 나름으로 해석하는 주체성을 분석하며, 이 사회에서 구성되는 혹은 구성되어야 하는 섹슈얼리티 정치학에 초점을 맞춘다. 첫 머리에는 현재 한국 사회의 성문화와 섹슈얼리티의 지형을 살펴볼 수 있는 좌담을 실었다. 한국 사회의 성문화와 섹슈얼리티 연구 방법론에 대해 이화여대 김은실 교수와 나누는 좌담으로, 한국 사회 섹슈얼리티 읽기의 성과학적?성자유주의적 시각, 젠더 환원적인 시각에 도전하고 있다. 1부에서는 주로 연애, 자위, 섹스와 임신, 미혼모, 성(폭력) 경험과 그 경험을 해석해 내는 여성 주체의 혼란, 긴장, 모순, 협상 등을 다루었고 2부에서는 요즘 한국 사회의 섹슈얼리티 쟁점들인 성매매, 성폭력, 레즈비어니즘에 대한 성찰과 포르노그래피, 영화에서 재현되는 여성 주체들의 다양한 섹슈얼리티에 나타난 모순과 가능성 읽기, 애인, 탕녀로 재현되는 신여성의 성애화가 지닌 현재적 의미를 다루면서, 지금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섹슈얼리티 정치학의 역동을 보여 준다.		
6	꽃을 던지고 싶다 - 아동 성폭력 피해자로 산다는 것	너울 지음	르네상스
	아동 성폭력을 여러 차례 경험하고 오랜 세월 트라우마와 힘겹게 싸워온 한 생존자의 용기 있는 고백 초등학교 시절, 수차례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이 25년 만에 자신의 피해 경험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책은 어린 여자아이가 겪은 끔찍한 사건과 그로 인해 황폐해진 삶, 그리고 트라우마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번호	제목	지은이	출판사
책소개			
7	성폭력을 다시 쓴다 - 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정희진 엮음	한울
	<p>현재 반(反)성폭력 운동이 직면한 딜레마에 천착하여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를 모색한다. 또한 그간 성폭력을 문제화하는 데 깊숙이 전제되어 있던 인권 개념의 서구 근대 남성중심적 사유의 틀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적, 인식론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필자들이 보고, 듣고, 겪은 생생한 내용을 토대로 쓴 것이다. 특수한 사적 경험에 그쳐버릴 수도 있는 사건의 사회적 맥락을 고통스럽게 성찰함으로써, 이 책은 여성문제를 뛰어넘어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민주적 법제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새로운 관점과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다.</p>		
8	[가정 폭력과 여성 인권]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정희진 저	또 하나의 문화
	<p>여성의 삶과 인권을 삶의 화두로 삼고 있는 저자가 가정내 아내 폭력에 대해 포괄적이고도 실증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는 여성들이 얼마나 심하게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폭력이 남편과 아내의 성 역할 규범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상적인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을 통해 가정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여성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아내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있는지를 드러내 준다.</p> <p>폭력에 시달리는 아내들,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들과 진행되는 심층 인터뷰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워지는 것은 그들 중 누구도 여성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성이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행해야 하는 성역할들이 한 사람으로서의 여성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데 짓밟힌 여성 자신조차 잘 모르고 있더라는 것. 이제 "아내 폭력은 가족 유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개인의 인권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좀더 실천적인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p>		
9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 어느 성폭력 생존자의 빛나는 치유일기	은수연 저	이매진
	<p>'친족 성폭력', 더는 낯설지 않은 이 단어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먼저 다가온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걸린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분노한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냐면서 '인생 망친' 피해자를 동정하고, 정상적인 우리 가족의 삶에 안도한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의 목소리는 듣지 못한다. 신문 지면 위에서,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피해자는 그저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일을 당한 낯설고 무력한 존재일 뿐이다.</p> <p>《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는 이 침묵을 깨고 피해자의, '생존자'의 생생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는 책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소식지 《나눔터》에 4년 넘게 연재된 글을 엮고 다듬은 이 책에서 저자는 초등학생 때부터 9년 동안 아버지의 성폭력을 견디다 마침내 탈출할 때까지 자신이 겪은 경험을 가감 없이 증언한다. 그리고 탈출과 가해자 처벌에서 끝나지 않은 '생존자'의 이야기, 상처를 치유하고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가해자와 가해자를 두둔하고 방치한 사회를 향한 분노를 감추지 않으면서, 힘겨운 삶을 살아낸 자신의 비법을 전수해주며,</p>		